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을 탐구하다'

계룡산 안내판의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 제안

2017. 08. 26

1413 이승은, 1414 이준성, 2414 한상진

지도교사 : 박성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계룡산 안내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413 이승은, 1414 이준성

2414 한상진

1. 탐사의 필요성

산행 전 주의사항을 시작으로 공원 안내도, 갈림길 표지판, 계도 표지판 등등의 안내판들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계룡산 국립공원의 안내판과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면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안내판의 사례를 보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탐사 기간 동안 계룡산 안내판의 여러 특징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단순히 국립공원 측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규정에 맞게 안내판을 디자인하여 계룡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건의하고,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탐사를 진행하였다.

2. 탐사 과정



Fig 1. 탐사 경로 (1일차-동학사, 2일차-갑사)

가. 1일차(2017. 08. 21.)

1) 동학사 및 남매탑 탐방

입구에서부터 동학사로 가는 길을 걸으며 안내판 및 표지판을 발견할 시 카메라로 찍어 사진으로 남겼다. 중간에 ‘자연관찰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서

안내해설판을 찍은 뒤 다시 큰길로 갔다. 동학사에 도착한 후 다시 남매탑까지 이동하여 안내판을 촬영하고 2시 이후에 하산하였다. 그 후, 특정 안내판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를 개선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팀원끼리 토의를 하였다.

2) 대면 인터뷰

탐방안내소의 관리자께 사전에 연락드려 인터뷰 허가를 받은 뒤 사무실에서 약 2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후, 관리자께 요청하여 NPIP(안내판 규정) pdf 파일을 메일로 받았다. 인터뷰 때 질문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Q2: 디자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Q3: 안내판의 제작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Q4: 안내판에 꼭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Q5: 안내판 중에서 현수막, 나무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Q6: 공주시와 계룡산국립공원 두 단체가 공동으로 안내판을 제작하나요?

Q7: 남매탑을 가는 길에 표지판이 별로 없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Q8: 남매탑 정상에 긴급전화 QR코드가 있던데, 왜 굳이 QR코드를 사용했나요?

Q9: 안내판의 현황 또는 자료, 그림, 내용을 따로 컴퓨터나 종이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나. 2일차(2017. 08. 22.)

1) 갑사 탐방

갑사 입구에서 갑사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건다가 용문폭포에서 탐방을 마쳤으며, 동학사 및 남매탑 탐방과 동일하게 안내판 및 표지판 발견 시 사진으로 남겼다.

2) 전화 인터뷰

동학사 및 남매탑 탐방이 끝난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정리해두어 인터뷰 때 알게 된 안내판 관리 담당자 성함을 통해 관리자께 연락하여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화 인터뷰 때 질문하였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저희가 탐사를 하면서 필요해 보이는 안내판을 NPIP 규정 하에 직접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안내판과 저희가 탐사를 진행하면서 생각한 개선방안을 국립공원에 직접 건의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일반인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나요?

Q2. 장소 선정부터 내용까지 안내판 설치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Q2-1. 남매탑 가는 길에 있는 지지대가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부식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난간의 재질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건지?

Q2-2. 입구 쪽에 있는 표지판의 위치가 보기에 매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던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지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Q3. 장애인들의 이용을 위한 시설이나 자료가 있나요?

Q4. 나무 등에 안내판이 가려진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에 이러한 안내판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다. 연구의 방향

초기 계획으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안내해설판, 내용상의 오류, 일러스트 등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안내판 제작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외주를 맡기기 때문에 안내판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안내판의 내용과 디자인을 수정하기보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개선방법과, 적용 시 이용객들의 산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3. 탐구 결과

가. 관리 상태

1) 표지판의 훼손

Fig 2는 남매탐에 도착하였을 때 정면에 있던 ‘남매탐 상원암 복원 조감도’ 안내판이다. 표지판은 상당히 훼손되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으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러워진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이처럼 몇몇 표지판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2) 안내 해설판 기계의 고장

Fig 3은 갑사로 가는 방향에 있던 ‘갑사자연관찰로’ 속 안내 해설판 기계다. 원래는 이용객들이 버튼을 누르면 특정 새의 소리를 들려준 후 그 새에 대한 설명을 퀴즈 형식으로 알려주는 것인데,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새소리가 나지 않았다.

3) 안내판의 오염

Fig 4는 갑사로 가던 중 발견한 ‘숲의 기능’ 안내판이다. 한눈에 봐도 안내판에 먼지가 많고, 날파리들이 안내판 위에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갑사자연관찰로’의 나무와 관련된 안내판이다. 표시된 부분은 안내판이 관리가 되지 않아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많은 표지판들이 오염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안내판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주고 있다.



Fig 2. 훼손된 남매탐 상원암 복원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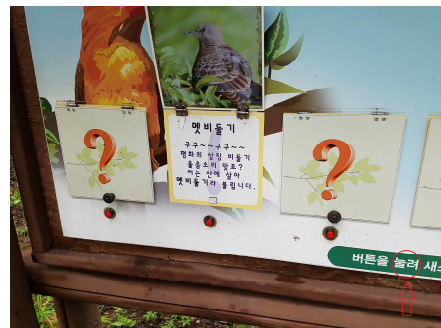


Fig 3. 고장난 안내해설판



Fig 4. 오염된 ‘숲의 기능’ 안내판



Fig 5. 오염된 나무 설명 안내판

나. 친절도

1) 위험한 위치

Fig 6은 동학사 입구 쪽의 ‘올바른 산행 방법’ 안내판이다. 이 안내판을 정면에서 보기 위해 자세를 취하면 뒤쪽의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2) 텍스트의 크기

Fig 7은 동학사 근처에 있는 ‘동학사 종합안내’ 안내판이다. 안내판에서 한글 텍스트의 크기는 크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 영어와 한자 텍스트의 크기는 가까이 보아야만 겨우 볼 수 있는 크기였다. 이는 외국인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다.

3)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동학사와 갑사를 둘러보았을 때 점자로 된 안내판을 발견하지 못한 반면, 다른 국립 공원에는 점자로 된 안내판이 존재한다. 시각장애인들이 계룡산 안내판의 내용을 읽을 수 없어 안내판 설치의 목적인 정보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Fig 6. 올바른 산행 방법



Fig 7. ‘동학사 종합안내’ 안내판

다. 오류

1) 오타

Fig 2의 우측 상단은 ‘버튼을 눌러’를 ‘버튼을 눌러’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한글이 미숙한 어린이들이 잘못된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라. 정보의 부족

1) 주의사항 안내판의 부족

탐사 시 ‘우천 시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보지 못하였다. 비가 올 때 길이 미끄러워지면 자칫 발을 헛디뎈 넘어질 수 있어, 이러한 주의사항 안내판은 필히 있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가. 개선 방안

계룡산 안내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내판의 교체는 주기가 따로 없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안내판 교체가 총 1주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더욱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처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문 텍스트의 크기도 보기 좋은 크기로 늘려야 한다. 덧붙여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점자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생각해 보았다. 이용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판을 늘리고, 오타를 수정해야 한다.

나. 안내판 디자인

탐사 도중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몇몇 부족한 안내판이나 표지판은 NPIP 규정을 고려하여 직접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8의 경우 탐사 도중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돌다리가 하천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험을 표시하는 문구가 없어 의아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Fig 9의 경우 남매탑과 동학사의 갈림길에서 난이도 설명과 소요시간의 안내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지판에 소요시간을 기록하고 방향 화살표에 색을 입혀 한눈에 난이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0은 남매탑을 포함하여 미끄럼 주의라는 안내판을 한 번도 보지 못해 의아했다. 인터뷰에서 과도한 안내판은 환경 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지만, 우리가 만든 계도 안내판의 경우는 국립공원 측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디자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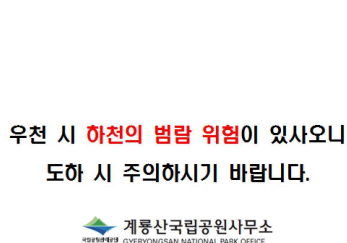


Fig 8. ‘도하 시 주의’ 안내판



Fig 9. 내용이 추가된 목적지 안내판



Fig 10. ‘미끄럼 주의’ 안내판

다. 제안 및 건의

gyeryong.knps.or.kr의 [열린국립공원]>[제안합니다]에 '계룡산 국립공원의 표지판 및 안내판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계룡산국립공원의 안내판 및 표지판의 문제점과 우리가 생각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문을 8월 23일에 업로드했다. 8월 24일,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관리, 오류 등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으며, 안내판에 점자를 추가하는 것은 현재 계획 중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직접 제안한 NPIP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지판은 현재 검토 중이라 하였다. 제안한 대부분의 개선 사항이 현재 계획 혹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안문이 성공적으로 반영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 활동 후기

▶ 이승은 : 계룡산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보았는데, 문제점이 생각보다 많아 놀라웠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안내판도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국립공원이 아닌 산들에 설치된 안내판은 얼마나 더 큰 문제점들이 있을까 궁금해져, 계룡산에서 진행한 탐사 과정을 우리 집 뒤에 위치한 청계산에서도 진행해보고 싶어졌다. 또한, 계룡산 탐사 과정에서 인터뷰, 건의문 게시와 같이 이전에 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했고, 이를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이준성 : 먼저, 주제를 팀원들과 결정한 뒤 국립공원 탐방을 진행한 후 서로 토의하여 결과물을 산출해낸 것이 매우 참신하였다. 그리고, 주제를 탐구하여 찾아낸 개선방안을 국립공원에 직접 제안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해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우리가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어 이번 인문자연탐사에 매우 보람을 느꼈다. 계룡산 국립공원의 안내판에 하루빨리 우리의 개선방안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 한상진 : 주제에 대한 탐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힘들었던 많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직원 분과 인터뷰한 적은 처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답변을 받고, 반영도 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가치 있는 탐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했다.

6. 참고 문헌

- 1) 신현호, 이주희, 서응철, 성부근, 박정아, 윤상현. (2011). 국립공원 탐방로 등급제에 관한 국제사례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4), 21-28.
- 2) 신원섭, 김태운. "월악산 국립공원 이용객의 자연에 대한 심리 태도 수준이 공원 관리 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1 (1998.5): 65-78.
- 3) 양영종, 김제중. "한국 관광안내표지판의 발전모델."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00.02): 247-256.

- 4) 장영호. "서울시 관광특구의 공공사인 배치 및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 (2015.12): 571-580.
- 5) 김태영, 조혜경. "경남지역 관광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08.5): 1-139.
- 6) 김영국, 주연정.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의 디자인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013.5): 159-169.